

변인수 귀금속 명장이 선보이는 고품격 공예 작품

'백제의 얼을 담다'

익산 보석박물관서 내달 1일까지

보석박물관이 변인수 익산시 귀금속 명장을 초청해 귀금속·보석 공예 작품 43여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오는 9일부터 11월 1일까지 파라미드동 2층 상설전시관 아트갤러리에서 '백제의 얼을 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변인수 명장이 세계유산 백제 왕도의 탄생과 부흥, 변영의 스토리텔링과 전통 상감기법 및 자연과 접목시킨 특수기법의 레플리카 활용으로 5년의 기간 동안 제작한 '백제의 얼을 담다' 시리즈를 선보인다.

이밖에도 백제의 정원 및 여자의 일생, 사계 등을 주제로 금, 은 등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진주 등 다양한 보석으로 제작된 브로치, 반지, 목걸이의 시리즈 주얼리 작품을 함께 준비했다.

변인수 귀금속 명장은 동산동에 위치해 있는 변씨공방 대표로 35년간 귀금속·보석 산업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지난 2015년 익산시 귀금속 보석 명인과 2016년 익산시 귀금속 명장으로 선정돼 최고 베테랑으로 인정받았다.



변인수 명인이 선보이는 다채로운 귀금속 공예 작품들.

명장은 1997년 전국귀금속디자인 공모전에 도전하여 대상을 수상하였고 교도소 재활 직업훈련과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사회에 공헌해왔다.

광경원 보석박물관장은 "세계유산 백제 역사유적지구 '보석의 도시' 익산의 귀금속·

보석 가공의 솜씨를 이어받아 훌륭한 익산시 명장으로 전통을 잇고 희망의 미래를 염원하는 진귀한 작품들이 전시된다"며 "전시 기간 동안 방문해 지역 귀금속과 보석 관련 역사·문화가 담긴 작품을 마음껏 감상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가 문화재청이 실시한 내년도 문화재 야행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올해 진행된 문화재야행.

익산 문화재야행, 4년 연속 공모 선정

2018년 처음 시작한 이후로... 내년 백제왕궁 등 문화유산 소개키로

익산시가 문화재청이 실시한 내년도 문화재 야행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신규 9건을 포함해 전국 42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익산은 지난 2018년 처음 시작한 이후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익산시는 지난해 우수야행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백제왕궁이 갖는 매력을 통해 매년 좋은 평가를 받아 국비 확보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 실시될 익산문화재야행은 '백제왕궁에서 어라하를 보다'라는 주제로 백제왕궁(사적 408호 익산왕궁리유적)과 지역의 10여가지 문화유산을 공연·체험·전시·야간경관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진행된 문화재야행이 코로나19에

대비한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야외 행사 방역의 모범을 보여준만큼 내년에는 더욱 강화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비대면 콘텐츠를 개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새로운 행사의 패러다임을 선보일 계획이다.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가 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문화유산과 주변의 문화콘텐츠를 엮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야간에 문화재 향유기회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이다.

정현을 시장은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우수한 콘텐츠 개발로 우리 지역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내일을 위한 정부예산
보다나온 KRF
농어촌공사

축! 전주매일 창간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대한민국 농어촌의 희망을 경영합니다

농어촌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꾸는 우리 농어촌.
어제의 농어촌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듯이
오늘의 농어촌이 내일의 우리나라를 만듭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하는 일

- 농어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농어촌용수 및 유지관리사업
- 농지은행사업
-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
- 자재 및 해외사업

KRF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부안예술회관, 문화예술교육 5개 사업 재개

예술감상·직업체험 등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20년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아트트립) 3,700만원과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감상형, 체험형) 2,700만원, 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기술입문문화예술교육) 4,900만원, 지역문화 예술육성 지원사업(문예창작반) 1,000만원 등 총 국비1억2,300만원을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확보해 지난 4월부터 순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8월 22일 전면 중단했다.

이들 사업은 청년·직장인·주민들이 생활권에서 예술 취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 동아리 활동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전북도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부안예술회관이 운영하는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이다.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은 전북도 문화관광재단 지원사업으로 문예창작반 수업은 우리군 문예인들에게 4월부터 매주 월요일 수업을 진행하여 중장년층의 문예창작 욕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

술감상교육은 '아트트립'이라는 슬로건으로 6월 초부터 11월까지 총 24회 교육과 공연감상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주요 감상 부분은 연극 및 뮤지컬이다.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감상형과 체험형으로서 컬처클럽과 부안군민오케스트라로 구성되어 6월부터 부안군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체험 문화예술교육인 기술 입문 문화예술교육사업은 9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9월말 개강하여 12월에 종료 되는데 기술과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문화예술 창작을 만드는 과정으로 총2기수중 1기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2기수 대상자를 모집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속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예술교육을 10월 10일부터 재개하여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민과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일깨우고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속에 여가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주민과 예술인들의 교류활동 문화적 소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안=김성진 기자

유튜브로 만나는 '단야-벽골제, 사랑이야기'

김제지평선온라인축제 맞춰 내일 오후 5시부터 11일까지 공개

김제 벽골제 단야 설화를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 '단야 - 벽골제, 사랑이야기'가 김제지평선온라인축제에 맞춰 축제기간에 공개 된다.

이번 공연은 지난 9월 22일 오후 7시에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되었고, 드디어 9월 오후 5시부터 11일까지 유튜브 채널 '김제지평선축제'에서 온라인으로 당일 녹화 영상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벽골제의 생생설화와 단야의 혼이 담긴 사랑이야기 등 김제만의 이야기를 창작으로 엮어낸 뮤지컬이



니만큼 심혈을 기울여 야심차게 준비한 공연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관객과 함께 직접 호흡하며 소통할 수 없었다.

안타깝게도 김제문화예술회관의 모든 공연이 10월 이후로 연기된 상황에서 한번 연기한 적이 있는 창작뮤지컬 '단야-벽골제, 사랑이야기'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 비대면 공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은 "이번 공연은 김제만의 이야기를 창작한 뮤지컬이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설 자리를 잃어가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에게 무대의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온라인 공연을 적극 도입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시민과 함께 온라인 공연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재 기자